

‘혼신의 수비’ 연변팀, 1등의 벽에 막혀 ‘홈 10 연승’ 좌절

— 아쉬움 남았지만... 연변팀의 투지와 열정은 계속된다



‘홈 10 연승’ 도전은 무산됐지만 연변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2만 7,000여명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7월 26일 오후 6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 18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료녕철인팀(이하 ‘료녕팀’)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0대1로 석패했다.

1위 팀이라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경기전에 밝힌 이기형 감독은 누네스, 서계조, 왕봉으로 수비선을 구축하고 리룡, 도밍구스, 박세호, 허문광을 중원에 배치한 후 황진비, 포부스, 김대연이 최전방에 나선 3-4-3 전형을 꺼내들었다. 키퍼 장갑은 구가호가 착용했다.

며칠전 영입을 공식화한 외국인 선수 우카추쿠와 왕성페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출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이날 ‘동북더비’에 원정 팬들이 수백명 몰리며 시작전부터 홈과 원정팬들의 응원전이 뜨겁게 펼쳐졌다. 열기는 뜨겁게 달구어졌고 중심의 휘소리와 함께 기대를 모았던 ‘강대강’ 빅매치의 서막이 드디어 열렸다.

과연 두 팀은 초반부터 탐색전 없이 강하게 맞붙었다. 료녕팀의 공격에 맞서 연변팀은 우선 수비벽을 세우고 물샷없이 막아내는 한편 역습을 통해 상대의 뒤공간을 노렸다. 경기가 시작되어 10분도 안되는 사이 두 팀은 서로 슈팅을 주고받으며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차츰 상대의 전방 압박이 거세지며 공방전이 치열했다. 연변팀은 수비에 집중하며 반격을 시도했고 공간을 파고드는 패스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었다. 료녕팀 문전에서 아슬아슬한 장면이 여러번 연출되는 듯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한방이 부족했다.

료녕팀의 공격이 상당히 강도 높게 펼쳐졌으나 연변팀의 방어벽을 허물 만한 묘책은 없었다. 두 팀은 중원에서 공 점유율을 높이며 눈치싸움을 벌였다. 료녕팀이 측면을 리용해 우리 팀 문전으로 침투하려는 김새가 보이면 우리 팀 선수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철벽 수비를 보였다.

비록 전반전에 연변팀은 1회의 슈팅에 유효 슈팅은 기록하지 못했으나 악착같은 수비로 강팀을 묶었다. 초반 25분에 우리 팀 골대를 위협해 넣었던 우벤자키의 먼거리 슈팅이 유효했지만 우의 료녕팀 또한 그렇다 할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며 슈팅 4회에 유효 슈팅은 1회에 그쳤다.

추가 시간 6분까지 잘 지켜낸 연변팀은 전반전을 0대0으로 마무리했다.

연변팀은 허문광을 리세빈으로 교체하며 후반전을 열었다.

연변팀은 랑 측면을 가동해 공격의 활로를 모색했다. 상대도 실력이 만만치 않았던 터라 치열한 접전으로 불꽃이 튀었다.

그러던 56분경, 도밍구스의 중거리 슈팅이 골문을 향해 힘있게 날아갔고 드디어 첫 골인가 싶던 순간, 공이

골대를 스쳐 흘러가며 짙은 아쉬움을 남겼다. 더불어 두 팀의 맞붙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분위기는 최고조에 올랐다.

61분경, 연변팀은 김대연을 빼고 왕자호를 투입하며 변화를 주었다.

수비에 전력을 다하던 연변팀의 철통 방어가 깨진 건 후반 71분이였다. 료녕팀은 코너킥 기회로 연변팀의 골문을 뚫으며 1대0으로 앞서갔다.

실점을 허락한 연변팀은 77분경 박세호를 빼고 신인인 우카추쿠를 출전시키며 분위기를 쇄신을 꾀했다. 6분후 도밍구스를 리강으로 교체, 연변팀은 연속 교체 카드를 쓰며 막판 스퍼트를 끌어올렸다.

이기고저 하는 연변팀의 의지는 강렬했지만 결정적인 찬스가 창출되지 못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8분, 공격을 주도한 쪽은 연변팀이었고 사력을 다해 문전에 충격을 가했다.

반면 한풀 앞선 료녕팀은 수비적으로 나서며 경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연변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부단히 골문을 두드렸으나 기다리던 풀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최종 연변팀은 0대1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졌지만 잘 싸운 연변팀은 8월 2일에 석가장공부팀과 4연승 홈경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김가혜 김파 기자

김득초대석

“다음 경기 승리하겠다” 이기형 감독, 료녕전 석패후 다짐



7월 26일 오후 6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갑급리그 제 18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강팀 료녕팀에 0대1로 아쉽게 패했다. ‘홈 10 연승’을 이룩하지 못했으나 끝까지 이 악물고 뽀 선수들은 팬들의 응원과 박수를 받았다. 경기후 있는 소식공개회에서 연변팀 이기형 감독은 “홈경기에 많은 팬

들이 왔는데 승리하지 못해 미안하다. 더운 날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표했다.

한편 현재 갑급리그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중인 료녕팀은 연변팀의 ‘마귀홀장’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하는 등 후반 71분 에야 코너킥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1 골 차로 신승을 거두었다.

경기후 소식공개회에서 료녕팀의 리금우 감독은 “료녕의 원정팬들에게 감사하고 연변팬들에게도 감사하다. 두 팀의 경기는 다채로웠다. 연변팀은 오늘 비록 졌지만 올 시즌 홈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며 연변팀의 성적에 공정을 표했다. 이어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 팀의 원정에 많은 지지를 준 연변경기구에 감사하다.”는 고마움도 함께 전했다.

/김파기자

[포토 포커스]

선수들이 땀으로 쓴 가치, 2만 7천 마음 얻었다



지난 26일에 펼쳐진 갑급리그 제 18라운드 료녕철인전에 2만 7,228명의 팬들이 몰리며 만원 관중을 이뤘다. 경기후 갑급리그 제 18라운드 통계에 따르면 오랜만에 경기장 곳곳을 꽉 채운 연변팀 홈장이 ‘홈 관중수 1위’를 찍었다. 2위가 섬서림합 홈장의 1만 5,493명이었으니 큰 2배가 되는 차이로

압도적이다.

이날 연변팀은 비록 ‘홈 10 연승’ 행보를 멈추었으나 결과보다 아름다운 것들도 분명 존재함을 선수들과 감독진은 과정으로 증명했다.

패배에도 선수들의 투지는 빛났고 몸을 던진 혼신의 수비와 이 악물며 흘린 땀방울들은 2만 7,000

여 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장에 남은 건 패배도 아쉬움도 아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연변팀 정신과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다독인 팬들의 응원소리가 아닐까 싶다.

/글 김가혜기자
/사진 김영화기자

연변주 중소학교 룩상대회 돈화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국, 주교육국에서 주최한 2025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중소학교 룩상대회가 돈화시에서 펼쳐졌다.

고중부, 초중부, 소학부 A조, 소학부 B조 등 4개 급별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경기는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 800미터, 1,500미터,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등 여러 종목을 설치했다.

전 주에서 온 8개 팀의 132명 선수들은 높은 투지로 전력을 다해 경기에 집중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강한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치열한 각축전을 거쳐 돈화시실업중학교가 고중부 단체 우승을 차지하고 연길시 2팀이 초중부 단체 우승을 차지했으며 연길시팀이 ‘체육도덕풍격상’을 획득했다.

/김파기자

룡정시과외체육학교 U-12, 2025 중로 축구초청대회서 1·2등 싹쓸이

7월 24일, 훈춘시인민정부와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훈춘시 ‘이웃과 함께하는 축구꿈’컵(邻聚足梦杯) 중로 축구초청대회가 원만히 막을 내렸다.

중로 청소년 축구의 힘을 결집시킨 이번 대회에서 룩정시과외체육학교의 활약이 단연 눈에 띄었는데 U-12 유소년팀의 A팀과 B팀은 여러차례의 치열한 각축을 거쳐 완강한 경기정신과 끈끈한 팀워크로 우승과 준우승을 싹쓸이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대회 청소년부에는 중국 여러 지역에서 모인 팀들과 로시아에서 온 팀들까지 총 12개의 수준 높은 팀들이 참가해 전문적인 경기 실력과 뜨거운 운동 열정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룩정시과외체육학교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휩쓸며 거둔 성적은 팀의 일상적인 훈련 성과를 확실히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축구인재 육성 분야에서의 탄탄한 기반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룡정시과외체육학교는 이번 영예를 계기로 축구사업을 더 높은 기준



으로 꾸준히 발전시켜나가면서 팀 실력을 다듬어 체육계에 더 많은 고수준의 후비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나이가 청소년 체육 발전의 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추구해나

겠다고 밝혔다.

/글 김가혜기자
/사진 룩정시과외체육학교